

고대법학

2015 Spring, Vol. 9

발행일 2015년 5월 12일, 제9호 발행인 신영호 편집인 이대희 편집장 김재희(6기) 편집부 금현경(5기), 나지선(6기), 박민선(6기), 윤성진(6기), 이상호(6기), 김소정(7기), 김현중(7기), 조승원(7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7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THE GLORIOUS BLOOMS

02 LECTURE SUMMARY 명사초청 특강 VIA JURIS 04 FOCUS 법학연구원
06 FELLOWSHIPS 고대여성법조교우장학회 07 SEASONS OF KU LAW 학교소식
08 FUTURE 3, 4기 졸업생 취업현황 09 GRADUATE INTERVIEW 4기 수석졸업자, 김찬영
10 CLEC 클리닉 공정거래 클리닉 10 NOTICE 교수동정 11 INFORMATION 인턴십 프로그램

제 1 강

법조인의 결의와 결단

채이식 교수

7기를 위한 VIA JURIS 수업은 2월 28일 채이식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되었다. 채이식 교수는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으로 재임하며 고대 로스쿨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한국인 최초 영국 변호사로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법조계에 기여한 공로도 지대하다. 이날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가 진지함을 넘어 경건하기까지 했던 이유다.

분명한 목표와 긍정적 사고를 지녀야

채이식 교수는 학생들에게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강한 어조로 특강을 시작했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고려대 로스쿨에 입학했는지 자문할 것과 다양한 목표가 있겠지만 모든 법조인은 정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려대 출신이라면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로스쿨 생활을 시작하는 7기들에게 서로 가슴을 열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어 고려대의 좋은 학풍을 이어갈 것을 부탁했다.

한편 어려워져 가는 법조계의 현실과 치열한 변호사 시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차분히 장래를 준비하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것이라고 고대인의 자부심을 한층 고무했다. 이는 로스쿨 생활 내내 학생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 하겠다.

'우리의 결의'를 마음에 새기고

강의가 끝날 무렵 채이식 교수는 학생들의 눈을 감고 '우리의 결의 3항'을 선창했다. 그를 따라 암송하던 학생들은 일순간 그것이 40분 강연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첫째, 우리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정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우선한다. 둘째, 우리는 언제나 신의를 지키며 서로가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간다. 셋째,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창의적 정신으로 미래에 도전한다.

이는 로스쿨생활에 핵심지표이자 초대 원장 시절부터 품어온 채이식 교수의 지도이념으로 앞으로 매일 우리를 일깨워 줄 큰 울림이 될 것이다. **KL**

김현중 법학전문대학원 7기

제 3 강

법률가의 능력

배훈 변호사



4월 1일, VIA JURIS의 세 번째 강연이 진행되었다. 배훈 변호사는 재일교포 2세로 오사가 변호사 법인 오르비스의 대표이자 사단법인 애신애린사의 이사를 역임 중이다. 배훈 변호사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한국어 강연에 설렘을 표하며 한마디 한마디 진심을 담아 강연했다.

다양한 학문과 전문 경험치

배훈 변호사는 먼저 법률실무가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건전한 가치 판단능력과 사실 인정 능력, 법규명해석능력을 꼽았다. 법규명해석능력은 학교 수업과 책을 통해 스스로 습득할 수 있지만 건전한 가치 판단능력과 사실 인

정 능력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다른 세계로부터 배워야 하는 능력이라며 이를 습득하기 위한 방법을 전했다. 건전한 가치 판단능력은 최근 편향된 판결이 다수 발생했던 일본의 예를 꼽으며 판사에게 특히 중요한 역량이라 전했다. 잘못된 가치 판단능력이 사실 관계나 법규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전한 가치 판단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계의 역사를 탐구함과 함께 물리,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여 인종, 민족,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편향한 내셔널리즘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사실 인정 능력은 모든 법률실무가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사회시스템과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 경험치를 길러 판단력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꾸밈 없는 표명과 편견 없는 경청

법률실무가에게 필요한 태도로 자신감과 겸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치가 모순되지 않고 서로 보완되길 당부했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꾸밈 없이 표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 및 경험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타인의 견해도 경청하는 자세가 법률가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면 타인이 모방 불가능한 자신만의 강점과 점차 성장할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Number 1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Only 1이 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배훈 변호사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자원을 쏟으면 그 일이 바로 천명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조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KL**

조승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정의를 위한 지성의 관문 명사초청 특강 VIA JURIS

제 2 강

법학적 소양의 함양

이정미 헌법재판관



3월 25일, VIA JURIS의 두 번째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정미 재판관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당해산심판의 주심이자 간통죄판결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2인 중 1인이라는 소개는 강연의 초반부터 학생들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재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헌법적 사고와 헌법 재판의 실제

이정미 재판관은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현재 외국에서 많은 찬사를 받으며 벤치마킹 시도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언급하며 모든 법에는 헌법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으므로 법률규정을 볼 때 헌법적 사고로서 의문을 제기할 것을 권했다.

강연은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위헌정당해산과 간통죄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정당해산 심판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범위의 극히 일부이며, 사실관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간통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을 소개하며 자신이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중 법학전문대학원 7기

제 4 강

변호사의 소통

최승순 변호사



마지막 VIA JURIS 강연은 4월 15일 법무법인 화우의 최승순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최승순 변호사는 198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강연은 별로 말주변이 좋지 않다는 점사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법률시장의 변화에 로펌과 로스쿨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을 담고 있었다.

로펌의 진화

전 세계의 로펌들이 공통적으로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내변호사,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등 법률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해져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수요자인 고객의 법률 서비스 요구 또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의 로펌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영·미계 로펌은 전통적으

로 시간당 보수 체제였으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를 받는 형태로 바꾸었다. 또한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수익률을 보존한다. 특히 많은 로펌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 국가 또는 컨설팅회사와 연계한 법률 수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타 로펌과 제휴를 도모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건의 수임 준비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국내 로펌도 외국 로펌과 제휴를 꾀함은 물론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특히 법

무법인 화우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유일하게 진출한 국내 로펌으로 갖가지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강도 높은 내부 교육과 훈련은 물론이다.

기본과 내실

최 변호사는 법률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로스쿨 학생들이 무엇보다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먼저 민법을 비롯한 기본법의 기초와 논리적 표현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펌 지원자들은 기본에 충실하되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되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는 주도적이고 책임지는 자세, 상호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감을 갖춰야 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동기들에 대한 마음가짐이었다. 경쟁자라는 편협한 마음 대신 함께 성장하는 동료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에게 시원한 그들이 되어 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최 변호사의 말이 마치 한 줄기 단비처럼 들렸다. **KL**

김소정 법학전문대학원 7기

법학연구원 시리즈, Beyond Territory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

사이버 무법지대에 법치를 세우다

2012년 설립된 사이버법센터는 표현의 자유, 통상, 지식재산권, 범죄, 전쟁과 같이 인권 및 경제 문제 등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사이버법센터 소장 박노형 교수를 만나 센터의 역할과 현재 성과를 알아보았다.



법학의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고려대 사이버법센터는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중 특히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과 개인정보(Data Privacy)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을 잇는 5번째 domain(영역)으로 현재 학습, 경제, 산업, 나아가 정치에 이르기까지 실제 생활 관계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과 그 영역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센터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사이버법센터의 활동은 크게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로 나뉘집니다. 첫째 교육을 위해 일반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 문제'와 관련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과정에 사이버 전쟁규범, 사이버 안전에 관한 국제규범, 사이버안전 및 프라이버시 과목 등을 개설하고, 법학전문

대학원에는 개인 정보보호법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한편 '대학(원)생'을 위한 아카데미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실시된 'Cyber Security 아카데미'에서는 하루에 6개의 공개강좌가 열려 많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Data Privacy 아카데미'가 예정되어 있으며 매년 5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현재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사이버 안보, 사이버 전쟁 등에 대한 연구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봉사 차원에서 EU에서부터 특히 부각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운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잊혀질 권리'를 정보통신망법하러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법 전문가를 위한 특별한 공부비법이 있을까요?

사이버법 분야는 실무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나 아직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

은 기회의 영역입니다. 사이버법에 관심이 있다면 평소 신문의 국제면에서 사이버법과 관련한 논의가 가장 앞서는

미국과 EU에 관한 기사들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관련 연구에 있어 아시아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을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사례 스터디가 됩니다. 또 Google에서 관련 주제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국내외 수많은 자료들을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센터의 대내외적 활동과 자랑을 소개해주시지요.

먼저 연례행사로 아시아포럼을 개최합니다. 사이버법센터는 일본 게이오 대학의 사이버법센터와 아시아포럼을 격년으로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 사이버법에 관한 논의가 적기 때문에 주도적인 중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본과 함께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5월 30일~31일에 '제3회 Asia Forum on Cyber Security and Privacy(사이버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아시아포럼)'가 고려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사이버법·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콜로키움은 클라우드, 잊혀질 권리 등 시의성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작년에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EU사법법원 판결의 분석, 사이버 기본용어에 대한 미국-러시아 합의의 분석과 평가, 사이버 검열이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반기에는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망 중립성', 일본의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올 여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판사 한국법 연수'를 주최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젊은 Junior Judge들과 경력 있는 Senior Judge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학자들과 교류하고 한국법을 배우는 연수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연수과정은 양국 법학계의 학문적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도 전무후무한 교류과정입니다. 센터의 큰 업적 중 하나입니다. **KL**

김원중 '법학전문대학원 7기,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Activity Report CLC

Fact 1. 1월 21일~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Privacy & Data Protection'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주제로 패널을 구성했다. 동 패널에는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유럽위원회, 영국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Fact 2. 사이버법센터 소장 박노형 교수는 제네바(1월 12일~16일)와 뉴욕(4월 13일~17일)에서 개최된 '국제안보 관점에서의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관한 유엔정부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석해 그룹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홍콩 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The Rule of Law in a Globalized Environment' 컨퍼런스에서 'Establishing International Cyber Law'를 주제로 발표했다. 4월 20일부터 23일 독일에서 개최된 'Scientific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Research Consortium(IISRC)'에 참석해 사이버법센터의 IISRC 회원 가입 승인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Fact 3. 4월 28일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Blair Stewart와 국내 학계, 기업 및 법조인 등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을 초청해 'Modernization of APEC Privacy Framework'를 주제로 사이버법·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제3차 신임해상변호사 강좌

3월 23일부터 25일,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는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로스쿨생의 해상변호사·해운조건기업 등 사내변호사 진출을 위한 제3차 신임해상변호사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고려대, 영남대, 전남대 등 로스쿨 4기 졸업생 및 실무자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해운실무(손점열 부사장, 테크마린), 해운시장의 구조와 실제(김기홍 대표, 경영전략연구원), 운송 및 용선 관련 클레임(정병석 변호사, 김&장), 해상보험 이론 및 해운조합 공제(김창진 공제실장, 한국해운조합), 해상적화보험의 이해

법학연구원
노동법정책센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29회 정기학술대회 '최근 노동법 이슈와 쟁점에 관한 재검토'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노동법정책센터는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에서 '최근 노동법 이슈와 쟁점에 관한 재검토'를 주제로 최근 노동법 이슈 및 쟁점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제1부에서는 파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2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동법적 쟁점과 입법개선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날 학술

(조성국 변호사, 지현), 선박충돌·항법·해양안전심판제도(김인현 교수, 고려대), 유류오염·난파물체제(채이식 교수, 고려대), 선박건조·선박금융(정우영 변호사, 광장) 강좌가 열렸다. 그리고 해상변호사들과 함께 좌담회 및 저녁식사를 가졌다.

세월호 참사 1주년 특별세미나
해상여객안전대책 어디까지 왔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번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와 안전조치 등 후속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을 제공해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주년을 맞이하며 그 동안 재발방지대책으로 이루어진 조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위해 2015년 4월 16일,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해상여객안전대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는 주강석 상무(장금상선)가 사회를 맡아 '세월호 이후 선박안전관련 제도의 개정'을 주제로 운항관리(한종길 교수, 성결대학교), 선원 교육(전영우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의 안전점검(진중광 홍보팀장, 한국선급) 및 손해배상과 책임보험 등(김인현 교수, 고려대 로스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제2부는 최종현 회장(한국해법학회)이 사회를 맡아 '해상여객안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박혜진 과장(국회 법제실), 김우호 박사(KMI), 조봉기 이사(한국선주협회), 주강석 상무(장금상선) 및 이정덕 사장(한림해운-내항여객선사)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KL**

대회에는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센터는 연구실 확장 및 연구원 보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KL**

법학연구원 원고를 기다립니다

법학연구원에서는 「고려법학」 제77호의 특집주제 '회사법의 최근 쟁점'에 대한 원고를 2015년 5월 15일까지, 제78호의 특집주제 '형사법의 최근 동향'에 수록할 원고를 2015년 8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려법학」은 총재 박간해오던 법학논집 및 법률행정논집(1958년~1999년)과 판례연구(1962년~1998년)를 2001년 4월에 통합한 저널로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승인되어 매년 4회 발간되고 있다.

고대여성법조교우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여성법조인을 위한 멘토링 모교사랑의 발로입니다

2015년 3월 26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111호에서 고대여성법조교우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고대여성법조교우장학회는 고대 여성법조 교우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장학기금을 형성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정통성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로스쿨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재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발족되었다.

여성 법조인들이 모인 장학회의 의미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초기에 4천만 원의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고대여성법조교우회 차원에서 장학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를 통해 장학금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관심 있는 여성 법조인들이 추진하여 이번 장학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여 고대 동문으로서 느낀 점은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문화가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그간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제는 여성 후배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문화처럼 고대 여성문화도 장학회를 통해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공익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목표를 향해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돕는 정신', '공동체 정신'은 고려대학교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 여성법조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회가 '여성법조조직' 네트워크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장학기금의 모금 과정은?

1년치 장학금을 모금하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다면 먼

오실까요? 그만큼 정말 많은 선배들이 관심을 모아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액단위로 기부하겠다는 선배들이 있어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장학금만 수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소액이지만 지속성 있는 모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매일 커피 한 잔씩을 줄여 한 학기 한 명의 후배에게 격려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십시일반의 마음이 모여 장학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회의 향후 계획은?

먼저 뜻있는 선배들이 모여 후배들의 학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 장학회는 선배와 장학금 수혜 후배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일종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법조인 선배만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년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회 풀도 점점 넓혀갈 예정입니다. 학교 대외협력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협조로 장학회 기금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장학생이 장차 후배 장학생에게 멘토가 되어 장학회의 전통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1기 장학생 박다정 양이 그 초석을 잘 다져 주길 기대합니다.

후배 여성법조인들에게 바라는 점은?

과거 여성법조인들의 수는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어디서든 여성법조인은 흉일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여성법조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거나 그만큼 자리 잡기도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보다 훨씬 더 고군분투해야 하는 후배들을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로스쿨 생활 역시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생 끝에 오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선배로서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즐거움과 감사함을 여러분도 곧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여성법조인들에게 'multi tasking'을 요구할 때가 많으므로 지금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맑은 정신에서 집중한다면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행복한 마음에 갖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L**

금현경 법학전문대학원 5기



왼쪽부터 정계선 겸임교수(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정영환 대외기획부원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 박다정 학생(로스쿨 2학년), 이정미 재판관, 이은경 변호사, 이경아 변호사, 김명숙 교수, 윤남근 교수.

교우회소식



2015 고대법대인의 밤

2015년 2월 10일 저녁 6시 30분,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2015 고대법대인의 밤 (정기총회)' 행사를 거행했다. 고려대학교법대교우회(회장 이귀남 69)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염재호 고려대학교 신입총장,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및 선후배 교우 700여 명이 참석하여 선후배 간의 끈끈한 우애와 탄탄히 단합된 모습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이번 행사는 75학번 동기회(준비위원장 노환균 75)에서 준비했으며,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과 공로상 시상 및 영진교우를 축하하고 모교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에게 후원금 증정식도 가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고대법대교우회 교우자격으로 다수 참석하여 식사와 여흥을 즐기며 인사를 나누었다. **KL**

행사소식

세월호 1주기 특별세미나 해상여객안전대책 어디까지 왔나

고려대 로스쿨과 해상법연구센터는 2015년 4월 16일(목) 세월호 1주기 특별세미나를 국회법제실의 후원으로 고려대에서 개최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세월호 관련 세미나를 2014년 3번 개최하여 해상안전대책에 기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운항관리, 선원교육, 선박의 안전점검 및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관련, 각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개정법률의 내용과 변경된 안전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미비한 점과 추가 개선될 사항을 지적했다. **KL**

학교소식

조사: 김재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윤성진 법학전문대학원 6기

제108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15년 2월 25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5층 대강당에서 제 108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김인현 학생부원장의 사회로 시작해 박지순 교무부원장과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인사가 이어졌다.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법조계 발전에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석졸업의 영광을 안은 김찬영(4기) 원우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하며 학교와 교수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려대학교를 빛내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고지용(6기) 원우 또한 선배의 졸업을 축하하며 앞날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4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졸업과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졸업생의 미래에 무한한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지난 2월 27일,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식이 신법학관 5층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박지순 교무부원장의 사회에 맞추어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귀남 법대교우회 회장이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지순 교무부원장의 학교 교육과정 소개가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교수진 소개와 함께 앞으로 신입생들이 3년간 배워나갈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식순이 끝난 후 신입 원우들은 모두 붉은 색의 넥타이와 스카프를 두른 채 단체사진을 찍으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교우 장학금 수여식

2015년 3월 2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교우 장학금 수여식이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111호에서 열렸다. 이번 제1회 수여식에서는 고대정신이 투철하고 성적이 우수한 후배로 선정된 재학생 2명(강현명(6기), 오정은(5기))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노환균 변호사(법 75), 성기욱 이사(법 78), 범현 변호사(법 91), 박성진 변호사(법2001), 장수연 변호사(2011 로스쿨 4기)가, 학교

인사로는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지순 교무부원장, 이대희 학생부원장, 정영환 대외기획부원장, 김인현 교수가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원장은 장학회에 대해 감사하며 훌륭한 인재를 키울 것을 약속했다. 재직 교우들은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2학기에도 재학생 2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전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장수연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범현 변호사, 성기욱 이사,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 강현명 학생, 오정은 학생, 노환균 고문변호사, 정영환 대외기획부원장, 이대희 학생부원장, 김인현 교수, 박지순 교무부원장

한국도선사협회 장학금 수여식

2015년 3월 10일, 신법학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도선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협회는 2009년부터 김인현 교수님과 남다른 인연으로 매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다연(3학년) 학생이 그 영예를 안았다. 한편, 김인현 교수는 협회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하여 다른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KL**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표단 방문



4월 24일(금) 제2기 1회 법학전문대학원장단 대표단이 고려대학교를 방문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인 원장단은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서울과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을 번갈아 방문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방문은 제2기 원장단의 첫 방문으로 행사는 법학관 신관 401호에서 열렸다. **K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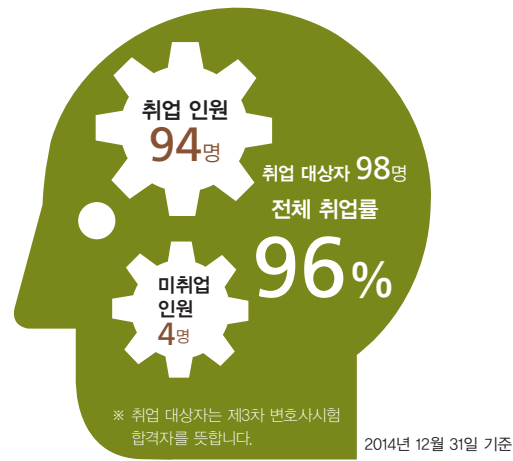
3, 4기 졸업생 취업현황

숫자보다 큰 내실, 순위보다 큰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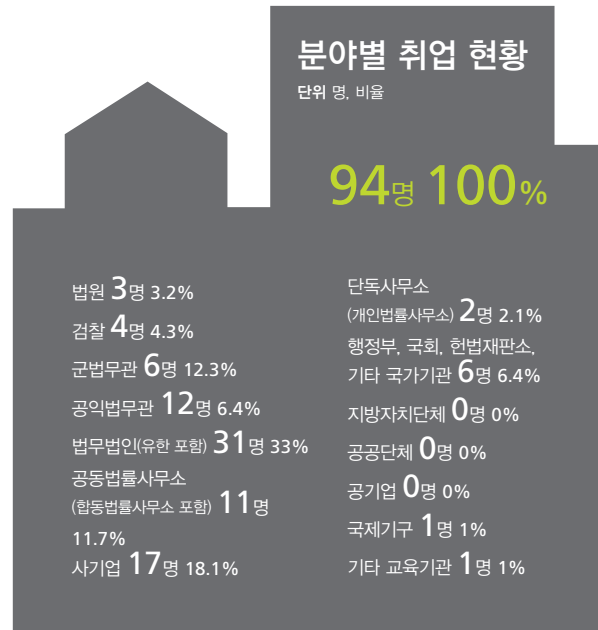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2014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발표되었다.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3차 변호사 시험 합격자인 취업대상자 98명 중 94명이 취업 확정되어 취업률은 96%이다. 분야별로는 로펌 취업자 수가 31명(33%)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업의 사내변호사가 17명(18.1%)으로 뒤를 잇고 있다. 법원 3명, 검찰 4명, 행정부·국회·헌법재판소 등 기타 국가기관 6명, 공동법률사무소 11명, 단독사무소 2명, 국제기구 1명 등으로 3기 졸업생들이 실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음을 확인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취업률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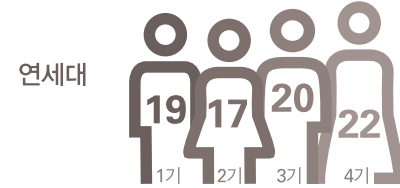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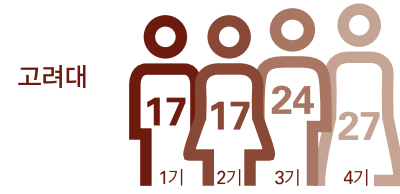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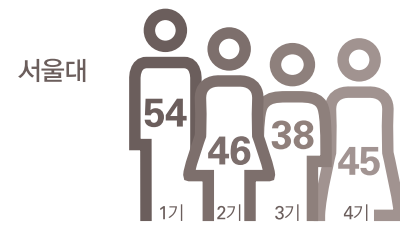


SEASONS OF KU LAW 취업소식

- 고려대 법전문 3기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98명 중 94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96%를 달성하고 120명 이상의 로스쿨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 고려대 법전문 4기는 10대 로펌을 기준으로 28명(영국 로펌 1명 포함)이 취업하여 3기보다 4명이 앞선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로스쿨별 10대 로펌 합격자 수



※ 기수별 통계를 산출한 시점은 해당 기수 졸업연도 기준
자료: 10대 로펌 (광장 김앤장 로고스 바른 세종 율촌 지평 충청 태평양 화우가나다 순)

4기, 10대 로펌 합격 2위

지난 2015년 3월 10일자 한 국경제지면에 로스쿨 4기 졸업생 취업현황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로스쿨별 10대 로펌합격자 수를 중심으로 취업현황을 분석하면서, 특히 연세대 로스쿨을 크게 제친 고려대 로스쿨의 약진에 주목했다.

이번 기사는 10대 로펌(광장, 김앤장, 로고스, 바른, 세종, 율촌, 지평, 충청, 태평양, 화우, 가나다순)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기수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각 기수별 10대 로펌취업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전국 로스쿨 4기 졸업생 중 10대 로펌합격자 수는 총 116명이었으며, 그 중 고려대 로스쿨은 27명(23.3%)을 배출하면서 서울대 로스쿨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명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22명(19%)으로 3위에 그친 연세대 로스쿨과의 격차를 지난해보다 넓히면서 2위 자리를 굳건히 하였다. 이는 주목할 만하다.

고려대 로스쿨의 1기(2012년)와 2기(2013년)의 10대 로펌 합격자 수는 각각 17명, 누적 34명으로 초기에는 연세대 로스쿨(36명)에 비해 2명 뒤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기(2014년)에 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58명의 누적 수로 연세대 로스쿨(누적 56명)을 제치고 역전하였다. 올해에는 27명의 합격자를 더하여 85명의 누적 합격자 수를 달성하면서 연세대 로스쿨(누적 78명)과의 격차를 더욱 더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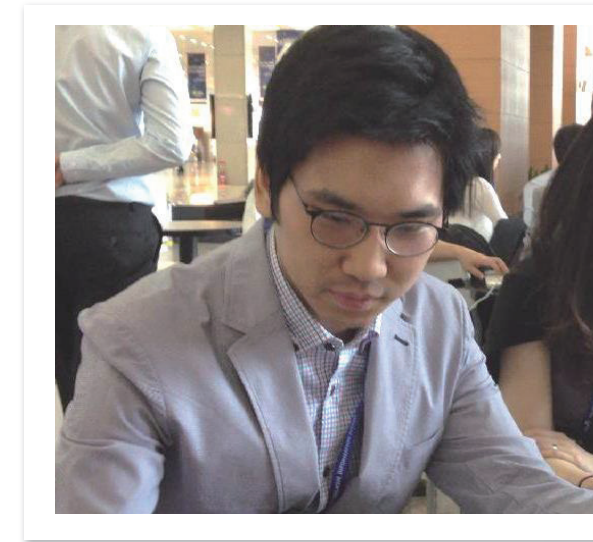
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과 훌륭한 커리큘럼을 지닌 '법대가 강한 고려대의 전통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로스쿨과 비교할 때 체계적인 경력지도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점 또한 이런 결실을 맺는데 주요했다. 앞으로 고려대 로스쿨이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 1위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기대한다. **KU**

나저선 법학전문대학원 6기

학위수여식 - 4기 수석졸업자, 김찬영

학점 로드맵을 정립하라

지난 2월 25일 제108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맡았던 4기 김찬영은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김찬영 수석졸업자를 만나 그만의 학습전략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Q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결법은?

제 스트레스 해결법은 운동이었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이상 스쿼시를 치고 런닝머신도 했습니다. 맘을 홀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공부에서 벗어나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영화나 미국드라마를 감상했던 것도 큰 낙이었습니다.

Q 학년별로 중점을 둔 사안은?

1학년 때는 학교 수업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법학사 출신이었지만 새롭게 출발한다는 초심으로 임했습니다. 중간고사 후에는 문제 복기를 통해 교수님의 출제 스타일을 분석하고 다음 기말고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법제처,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 실무수습)을 통해 로펌의 분위기와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실습은 시기도 중요하므로 제가 후배들에게 꼭 권장하는 바입니다. 2학년 1학기는 공부할 분량도 많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로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학점 수강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과목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회사법, 상법총칙에 충실했고 특히 2학년 여름 인턴을 대비해서 회사법을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취업이 되었는데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행정쟁송법, 민사집행법, 검찰실무 등)을 위주로 수강한 덕분에 3학년 때 좀더 수월히 변호사시험 준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Q 시험에 대처하는 나만의 비법은?

시험 때까지는 범위 안 법학지식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저는 각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손수 준비한 강의안으로 수업하시는 경우, 워드 필기를 덧붙여 문서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또 책이나 강의안에 있는 내용을 읽으며 부연 설명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은 책이나 강의안에 손으로 필기하고 사례집을 풀면서 보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암기의 팀은 자기만의 두문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쟁점의 주요 목차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의 핵심적인 문구는 반드시 두문자를 따서 그 내용 옆에 써놓고 입에 배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팀은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출제된 문제가 변형될 가능성이 있고, 출제자의 문제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시간에 대한 팁입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10분 동안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다음 모든 문제에 할당해야 할 시간을 배점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0분 시험에 10점짜리 소문제가 10개 정도 나왔다면, 먼저 10분 동안은 문제를 꼼꼼히 읽습니다. 다음 각 소문제 밑에 쟁점을 몇 단어로 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의 답안을 8분 내외로 작성해나가면 시간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답안을 작성하면서 제가 정해놓은 시간을 넘기겠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골고루 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변호사시험을 위한 대비는?

수준이 비슷한 동기들과 스터디 모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학습진도와 분량을 체크하면 긴장감이 유지되고, 부족한 과목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3학년 1학기에 민사와 공법, 여름방학에는 형사와 상법을, 2학기 때에는 그 동안 풀지 못한 문제들과 사법시험 기출 사례를 풀었습니다.

“로스쿨 3년의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노력이 주는 쾌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항상 옆에 두고 반복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5회, 6회 변호사시험에는 축적되는 기출문제가 더 많아지고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미 나온 쟁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작년 6, 8, 10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쟁점들이 4회 변호사시험에 언급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객관식, 사례, 기록형 등 유형별로 공부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지도 처음에는 학교시험을 준비할 때처럼 과목별 정리자료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겪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기본서와 기출 문제집(유니온 추천)을 고르고, 객관식을 공부할 시기에는 핵심지문 총정리와 최신 판례집을, 사례와 기록을 공부할 시기에는 사례집 한 권을 추가해서 반복 학습할 것을 권합니다.

시험 전 3개월 동안은 기본서와 객관식 기출 문제집, 최신판례에 집중했습니다. 객관식의 비중은 적으나 다수의 판례를 학습하다 보면 사례나 기록형에 특별한 쟁점이 나올 경우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미래계획과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6월에 입대하여 법무관으로 3년간 생활할 예정입니다. 그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과정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나 취업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끝없이 불행해집니다. 불행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힘들고 외로울수록 묵묵히 열람실에서 책을 펴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노력이 주는 쾌감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목표들을 차근차근 이루어서 3년을 성실히 보낸 후, 여러분에게 변호사시험의 합격과 취업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KU**

박민선 법학전문대학원 6기

공정거래 클리닉

성장보다 아름다운 ‘공정’을 위하여

본지는 다양한 분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CLEC 클리닉을 연속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정거래 클리닉’의 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자세히 알리고자 공정거래 클리닉 팀장 6기 이승훈 원우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공정거래 클리닉의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 클리닉은 2014년에 신설된 전문클리닉이며, 현재 정영환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도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클리닉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로부터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보호 및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시정을 촉구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1학기 기준으로 활동 중인 인원은 신입생인 7기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입니다.

Q 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주세요.

우리 공정거래 클리닉은 지난 학기부터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와 연계하여, 다국적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를 상대로 한 항공권 대금반환에 관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약관에 관련된 소송으로서 에어아시아 측의 부당한 환불거부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가집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약관 관련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며, 이를 통해 사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겪게 될 소송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큼니다.

Q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진행 중인 에어아시아 집단소송 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나아가 올 한해는 앞서 언급한 클리닉의 공정거래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움직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위하여 허위·과장광고, 가격·품질 비교정보 강화, 불공정한 약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다단계업체를 알리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종 세미나와 캠페인 준비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법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재학생들의 법률 지식수준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건(예를 들어 실제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관, 다단계방문판매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작성 등의



활동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이나 독일의 경쟁제한법 등 해외의 공정거래 법제를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 각국 법제 간 차이점과 고유한 특성 및 취지 등을 이해하고, 국내 거래관행에 비추어 도입이나 수정이 필요한 법제도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을 통해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교육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지면을 빌어 전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을 찾고 있고, 환영합니다. 이 분야를 희망진로로 꼽는 학생들은 상당수 있지만, 막상 이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클리닉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앞으로의 성장에 밑바탕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향후 여러 가지 계획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학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매년 한걸음씩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L**

이상호 법학전문대학원 6기

인사이드

- 지원팀 교수(민법)는 3월 1일자로 해송법학도서관장으로 2년 임기로 임명됐다.
- 학생부원장 및 학생지원센터장을 1년 3개월 수행한 김인현 교수의 후임으로 이대희 교수가 임명됐다.
- 대외기획부원장으로 2015년 3월 1일자로 정영환 교수가 임명됐다.
- 2년간 임기를 마친 하태훈 법학연구원장의 후임으로 3월 1일자로 김제만 교수가 임명됐다.
- 명순구 교수(민법)는 교무처장을 마치고 법전원의 평교수로 돌아왔다.
- 유병현 교수(민사소송법)는 3월 1일자로 기금기획본부장 겸 대외협력처장의 보직을 수행하게 됐다.
- 송인식 학사지원부장의 후임으로 유원중 부장이 취임하여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김계희 법학전문대학원 6기

NOTICE

교수동성

채이식 교수(해상법) 2월 28일자로 정년 퇴임했다. 채이식 교수는 1986년 고려대 법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다음 두 번에 걸친 법대 학장과 법전원 원장을 지냈다.

조영선 교수(국제재판법) 3월 1일 Wolters Kluwer의 세계 법 시리즈(IE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aw) 중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부분을 출간했다.

안효질 교수(법학83·법학전문대학원) 3월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박세민 교수(상법/보험법) Kluwer에서 한국보험법(Insurance law)을 발간했다.

장영수 교수(헌법전공) 2월 25일 제7기 국회입법지원 위원으로 2년간 위촉됐다.

김인현 교수(상법/해상법전공) 3월 17일 미국 롱비치에서 개최한 LegalPort 행사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에 대해 발표했다.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5년 1학기 VIA JURIS강좌를 개최하여 1학년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박기갑 교수(국제법) 2015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룩셈부르크 소재 Max Planck Institute에 visiting scholar로 초청받아 ‘외국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국가 공무원 면제를 연구했다.

김정호 교수(상법) 2015년 2월 상사법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년 2월부터 1년 임기를 수행한다. 회사법 제4판(법문사간)을 2015년 1월 출간했다.

이재형 교수(국제법, 국제통상법) 한·미 FTA 분쟁해결 패널위원으로 등재됐다.

박중수 교수(세법, 행정법) 201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표창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2015년 3월 3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KL**



INTERNSHIP PROGRAM

존중의 물을 지켜라

두 번의 방학과 세종 인턴

1학년 겨울방학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법무법인의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세종 특유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아 2학년 하계 인턴 역시 세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턴 전 준비사항은 시기와 회사별로 다른데 세종에서는 물권법 부분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이 부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태도의 차이

인턴 프로그램 기간 중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를 보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팀 별 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지, 토론 시 다른 이의 의견을 얼마나 경청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기본이 되는 에티켓이나 매너를 숙지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엘리베이터나 사무실에서 상사를 대하는 예의와 이 메일을 보내는 예절 등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인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찰의 삶을 느껴라

검찰심화 3주간의 과정

검찰을 지원한 학생들이 2 학년 겨울 방학에 나가는 실습과정으로 법무연수원에서 약 3 주간 진행됩니다. 1주차에는 검찰 강의 수강과 기록실습연습을 진행하고 2주차에는 일선 검찰청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3주차에는 서울남부교도소 견학, 주제 집단토론 및 강평, 영상녹화조사 실습, 개인별 면담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 외에도 장기자랑 및 체육대회 등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중 1주차 말, 3주차 초에 진행되는 기록 평가가 심화 성적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심화과정의 최종 성적은 3월 말~4월 중순 경에 발표되며 이 결과가 검사임용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검찰심화 신청의 조건

검찰심화과정은 11월 중에 신청하는데 면접 없이 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성건우(3기)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2014년도 하계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소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생활만으로 배울 수 없는 시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학점관리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인간적인 매력이나 꿈, 비전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1학년 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니 1학년 방학도 좋은 기회입니다.

인턴의 조건은 강한 의지

기본적으로 로펌 컨펌에는 학점과 인턴 프로그램 중 수행한 과제성적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문 자격증이나 제2외국어 능력 또한 큰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열정이나 태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학점관리에 힘쓰며 인턴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량적 요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강한 의지와 열정을 피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후배를 위한 조언

첫째, 자신의 꿈을 확실히 결정해서 그 꿈을 위한 진로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을 활용해 여러 직역을 체험해보고 자신만의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십시오. 무조건 로펌이 아니라 자신이 갈 만한 곳인지, 아니면 진정 더 가고 싶은 직역이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스쿨 생활 속에서 심신을 살펴 자기 관리에 애쓰시길 바랍니다. 체력을 기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학업 중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각박한 상황일수록 주변 친구들과 격려를 나누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로스쿨 생활은 얼마든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KL**

조승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은준기(5기)입니다. 겨울 방학에 참여했던 검찰심화과정에 대한 경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를 통해 실습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에는 1, 2학년 성적과 검찰실무 성적이 주요합니다. 이번에는 총 선발인원이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어 고려대학교에서도 25명 정도의 인원이 선발되었습니다.

과정에 앞선 준비

검찰심화과정에 앞서 CLEC의 형사본론실무 및 검찰일반실습을 통해 미리 검찰과정에 대해 접해본 뒤 검찰심화과정에 임했는데, 실제로 검사님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실무에서 중요한 점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록실습을 하며 형사법 자체에 대한 지식을 쌓기에도 유용한 시간이었고 실제로 채용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 과정은 로펌처럼 방학에 컨펌되는 구조가 아니라 3학년 2학기까지 전형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

든 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한 단계씩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학년 2학기 검찰실무1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2학년 2학기에 형사법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며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탐색의 기회

진심으로 검사직을 희망한다면 검사로 임관한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입생 분들은 1학년부터 본인이 어떤 진로를 가고 싶은지 면밀히 탐색하고 자신만의 진로를 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2학년 1학기까지 학점관리를 열심히 하면 인턴 등 진로탐색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하여 학점관리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통해 체력도 기르시기 바랍니다. **KL**

조승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법학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1905년, 누구도 변화를 꿈꿀 수 없었던 시대
'교육구국'의 한줄기 희망, 그 중심에 보성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법률적 토대를 세우고
법학의 학문적 선진화라는 대업을 이룩하기까지
이 땅의 희망을 위해 수많은 역경을 뛰어넘은 고려대학교
그 저력과 열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새 역사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야기,
2011년 시작한 작지만 한결음씩 내딛는 발자국입니다.



장학기금

발전기금

법무법인 율촌, 2018년까지 5억 원 기부약정

2014년 2월 12일, 법무법인 율촌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기부약정식'을 가졌다. 박해식 변호사(법학 80)는 뜻을 같이하는 모교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장학기금을 기탁하기로 했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이 뜻에 동의하여 이 같은 기부가 성사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쓰여질 5억 원은 5회 분할로 2018년까지 약정되었으며 2014년 1월 29일에 1억6백만 원이 기탁되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태평양교우장학회 결성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근무하는 교우를 중심으로 결성된 태평양교우장학회가 2015년 3월 23일 제1회 장학금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2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수여했다. 태평양교우장학회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설립자이신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와 노환균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 63여 명이 모교후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고대여성법조교우, 장학회의 발족과 기부

2015년 3월 26일 고대여성법조교우장학회가 제1회 수여식을 가졌다. 여성법조 교우회는 회원들이 큰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장학회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오늘의 장학회를 발족시켰다. 장학회는 앞으로 매 학기 500만 원으로 연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수여받은 장학생을 여성법조교우회 행사에 초청하여 선배들과 지속적인 멘토링도 맺어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김앤장, 교우회의 장학기금 기탁

2014년 11월 19일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교우회가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 4천5백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기탁하였다. 이정수 변호사(69)를 비롯해 20명의 교우들이 후배들에게 고대법학의 자긍심을 계승하며 미래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은 장학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날 기부식에는 이정수 변호사(69)와 최찬묵 변호사(80), 박성수 변호사(84)가 장학회의 대표로 참석했다.

(주)삼광 김진우 대표이사 1억 원 기부

2014년 6월 2일 김진우 대표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질 바라며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최고위과정을 4기(2014년)로 수료한 김진우 대표이사는 한국모바일컨버전스협회 회원,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운영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46회 무역의 날 7천만불 수출탑, 제48회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 제50회 무역의 날 3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주)세종 윤태석 회장 1억 원 기부 KNA최고위과정 5기 원우회 1억 원 기부

2014년 8월 26일 윤태석 회장은 앞서가는 연구와 충실한 교육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KNA 최고위과정 제5기 원우회원들(오춘길 고문, 윤태석 회장, 장영 수석부회장, 한승섭 수석부회장 외 35명)은 추가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1억 원을 기부했다. 윤 회장은 대한민국 물류대상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